'97년도 세계주요 통상 이슈 전망

이 규 억
(산업연구원장)

1997년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무역환경은 90년대 들어 그 어느 해보다 안정된 질서 속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선 세계무역질서를 관장하는 WTO가 출범한 지 2년이 경과하였고 최근(12/9~13) 제1차 각료회의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면서 그동안의 평가를 내린 후 향후의 주요이슈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국제통상현안을 모두 정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기초로 추가적인 통상협상들이 전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OECD에 정식으로 가입함에 따라 그동안 새로운 개방요인 내지는 통상압력 요인으로 여겨져 왔던 대 OECD 이슈도 대체로 정리되었다. OECD 가입은 자본이동과 국제투자의 증대라는 면에서 국내경제에 다소의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무역질서의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점을 얻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과 신인도가 크게 제고됨으로써 수출, 투자, 자금조달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주) 본고는 지난해 12月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체로 열린 "97년도 세계경제집단과 기업의 세계화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임.

APEC의 경우에는 금년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계획이 확정되었고, 그 동안 주요 이슈들이 기의 제기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실무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통상협력 문제를 다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 향후 다루어질 신통상이슈들의 경우에도 WTO 1차 각료회의에서 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우선 다자간 투자협정은 내년 구체적인 협정의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고, 무역과 환경 문제는 이미 국제적인 협약이 다양한 형태로 맺어져 있으며 나아가 무역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WTO의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여타 의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노정되고 있는데, 투자와 경쟁정책의 채택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이나 노동기준의 의제 채택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반대가 커서 논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밖에 최근 부각된 부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조달과 관련한 부패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와 관련된 국제적인 주요 통상이슈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므로, 이러한 통상이슈들에 대한 대응방안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계적인 통상질서의 형성 움직임과는 별도로 내년에도 세계 각 지역에서의 지역주의 움직임은 더욱 심화되고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확산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WTO 등 다자기구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여 위상을 제고시켜 가야할 것이며, 이러한 바탕위에 주요 교역대국 및 신흥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양자간의 통상문제에 있어서도 1997년의 통상여건은 비교적 호혜적인 분위기가 주된 기조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1기 당시의 공세적인 통상기조가 다소 완화된데다가, 그 동안 양국간의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상호 이해관계가 증진된 바가 크기 때문에 대미통상 관계에서 개선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금세기 내 폐지 천명 등으로 산업기술협력 및 통상협력의 분위기가 한층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며, EU와의 관계 면에서도 최근 ASEM 등을 강조하면서 EU가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을 나타냄에 따라 통상협력 관계가 증진되는 분위기가 주된 기조를 나타내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만 제외한다면 비교적 호혜적인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러시아와의 관계는 러시아 경제의 회복기조와 함께 통상협력의 증진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 아세안, 중남미, 중동 등과도 전통적인 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렇게 다자간 차원에서나 양자간 차원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은 작은 반면에 지금까지의 통상협상, 통상협력의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나아가서는 향후의 통상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제도 개선, 규제 완화, 시장개방 등의 분야에서 조치해야 할 분야가 매우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OECD 가입을 계기로 우리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또한 우리 나라 제도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이러한 국내경제제도의 정비 노력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향후 제기된 신통상이슈들 즉,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과 노동기준, 무역과 부패 문제 그리고 무역과 규제개혁 등의 통상의 제들이 한결같이 국내제도의 변화를 내표하고 있다는 면을 감안한다면, 이들 신통상이슈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 나라는 OECD 가입을 계기로 세계경제질서 형성 과정에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크게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이슈가 제기될 때에, 우리 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이용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고 이들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